

기조연설 |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



박 영 숙 (여성환경연대 60대 으뜸지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금번 회의의 목표는 ①여성의 관점에서 본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시각공유 ②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환경의제를 개발하며 ③한·중·일간의 여성환경네트워크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④동북아차원의 민간환경 협력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의 성과물로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환경문제로는 ①한·중·일의 계속적인 에너지 소비증가로 대기오염은 물론 세계3대 산성비 피해지역으로 지목 ② 황사문제의 발생원인 중국과 몽골의 산림개발과 경제개발로 인한 토양유실과 사막화 현상 ③황해 및 동해의 해양과 하천오염 ④동일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북아지역의 철새보호 등 생물다양성보전과 자연생태계보전의 문제 ⑤한국과 일본의 높은 인구밀도와 중국의 세계인구 1/4점유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증가추세 ⑥자원다소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문제 ⑦소득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한 식량부족문제 ⑧냉전분위기 잔재로 인한 군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은 소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금번 지구정상회의의 주제인 빈곤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환경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거창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활인들이 각기 선자리(가정, 직장)에서 작은 실천(물 한 컵, 전기 한 등, 종이 한 장 아끼는 것을 비롯한 친환경인의 생활수칙 준수)을 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강자의 논리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 및 성적 불균형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해 빈민층이 생계와 생명위협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문제삼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선진국에서는 강자의 논리의 주축인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탄생시켰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는 여성환경인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쟁점들이 재성관점화(Re-engender)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5년도의 UNDP의 자료에 의하면 ‘인간발전이 성관점화(engender)가 되지 않는 한 위험(endanger)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며 유엔의제 21의 제24장과 북경여성행동계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전 분야의 결의과정에서 성의 주류화의 가동이 시작된 것이다.

금번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성관점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여성 코카스(Women Caucus)에서는 ①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로 하여금 여성NGO들이 회의참가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회의참가를 위해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 ②최신 연구결과와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논의된 성인지적인 과제들과 준비된 정책 및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기

본원칙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인류의 공동의 명제로서 자리매김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가버너스(협치)’의 이론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의 정부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인 시장과의 파트너쉽에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엠파워먼트를 필요로 하며 엠파워먼트란 무엇인가 해낼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인 ‘힘’을 얻는다는 뜻이다. 여성의 무력화 현상은 국제회의에서의 해묵은 단골의제로서 남아 있다. **여성의 엠파워먼트란 여성들이 자기능력을 키워서 얻은 힘으로 억압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젠더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성의 힘은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상호협력하는 데서 배가 될 수 있다. 여성을 사회적인 억압구조에서 해방하고 사회적 평등, 공정, 엠파워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성에 대처한 개발계획으로서 지난 10년간 젠더 계획(gender planning)이라는 전략이 시도되었다.

오늘의 여성들은 세계13억의 절대빈곤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드는 결의지구예의 참여도는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는가하면 취업의 기회와 노동한 대가는 남성보다 뒤떨어지며 임신과 해산으로 매일 1600명이 죽어가는데 더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은 지구상의 어떤 인간군에게 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도 여성의 독자적이며 특수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남성들에 의한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강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억압자들과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시각이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역할이란 바로 약자와 강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게 하는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동북아여성환경인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 묶어진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3개국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발위주의 국가시책 또는 소비미덕의 거센 생활풍조에 제동을 가할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이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걸림돌인 국가간의 갈등을 만일에 뛰어 넘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 묘책은 분명히 오늘의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정치의 남북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특수한 역할을 모색한다면 금번 세계기구정상회의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목소리로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연대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끈질김을 발휘해야 한다. ♣

